

신안 앞바다 진도 4.9 강진... 전남이 불안하다

〈광주·전남 역대 최대〉

창문 흔들릴 정도... 놀란 주민들 문의 쇄도 국내 역대 6번째... 영광원전과 가까워 우려

중국 쓰촨(四川)성 지진에 이어 신안 해상에서도 지진이 잇따라 발생,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에서 하루에만 두 차례 발생한데, 첫 번째 발생한 지진 규모가 국내에서 역대 6번째, 광주·전남에서는 가장 규모가 컸다. 전남에서는 지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도 쇄도했다. 진앙 발생지가 영광원전발전소와도 가까워 원전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쓰촨성 지진에 놀라, 주민 문의 이어져=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1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0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어 이날 오후 6시21분께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00km 해상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다. 이날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지난해 8월 20일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던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15km 해역과 인접해 있다.

규모 4.9 지진은 물결이 흔들리고 정지한 차가 뚜렷하게 움직이는 듯 느껴지는 정도로 육지에서 이런 지진이 나면 실내에 있는 사람들 느낄 수 있다. 지진은 약 4초 정도 지속됐다. 이로 인해 기상청과 흑산면 사무소 등에도 지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도 이어졌다.

신안군 흑산면사무소 관계자는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느낌이 있었다”면서 “별 피해상황은 없다”고 전했다.

흑산과출소 관계자도 “배를 타고 섬에 들어왔지만, 지진으로 인한 풍랑이나 해일은 없었다”면서 “주민들은 창문이 떨리는 등 미세한 진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역대 6번째, 광주·전남 가장 큰 규모=이번 4.9 규모의 지진은 국내 지진 관측 이래 6번째로 강한 것으로 기록됐다. 광주·전남에서는 가



신안 해상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한 21일 서울 기상청 국가지진센터에서 직원들이 지진파를 분석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장 규모가 컸다. 기상청 관측 사상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지난 2004년 5월 29일 오후 7시 14분께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2 지진이다. 당시 지진으로 경상도 일원에서 건물이 흔들렸으며, 전국에서 진동이 감지됐다.

비공식 기록을 포함하면 지난 1980년 북한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리히테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판의 경계가 부근이 아닌 유라시아 판 위에 있는 곳”이라며 “쓰촨성 지진과 같은 판에 있던 지진과 달리, 거리가 멀기 때문에 두 지진이 연관됐을 가능성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신안 해상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한 21일 서울 기상청 국가지진센터에서 직원들이 지진파를 분석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영광원전에서 가까운데, 안전성 이상 없나=지진 진앙지가 영광원자력발전소와도 175km에 위치해 있는데, 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지진과 관련, “특이사항 없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안전위원회는

또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원전 인근(10~20km)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울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였지만 원전설비는 물론, 별다른 인명 및 재산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정열기자 halo@kwangju.co.kr

“특강 들러리 이제 그만”

‘빛고를 E&C아카데미’ 강좌 졸속 운영 정치인 강사 치적 자랑... 시 공무원 불만

광주시가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외부 강사를 초청해 시행중인 ‘빛고를 E&C아카데미’ 강좌가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선 5기 들어 상당수 강사진이 정치인으로 짜인데다 강연 내용도 치적 홍보 위주로 흐르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격월제로 ‘빛고를 E&C아카데미’ 강좌를 진행 중이다. 강좌는 평일 근무시간 중에 1~2시간씩 진행되고 있으며, 총 56회 2600여명(1회 평균 582명)에 이른다. 강사선정 기준은 교수, CEO, 사회단체 임원,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일반행정과 경제·문화 분야 등을 강의 주제로 하고 있다.

시행초기에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인 유희준 전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손욱 삼성종합기술원장, 유태식 일본 MK텍사 부회장, 민경조 코오롱그룹 부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민선 5기 들어 상당수 강사진이 정치색이 짙거나, 전문성이 낮은 인물이로 구성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선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민선 5기내 15차례의 강좌 중 6차례의 강사진이 타 지역 자치단체장과

광주시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였다. 지난 17일 열린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주제로 한 장회국 광주시교육감의 강좌는 오후 3~4시까지 1시간짜리였음에도, 참석자중 일부는 꾸벅꾸벅 조는가하면 스마트폰 검색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는 이날 분청 직원을 대상으로 장 교육감 특강에 참석하라며 청내 방송을 수차례 내보냈으며, 일부 부서는 전원이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민원인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장 교육감은 특강내 자신의 교육정책을 홍보하거나 해명하는 데 치중하는가하면 “인사때 승진자들이 뭔가를 내맡아 호통을 쳐 돌려보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내용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 한 직원은 “언론 등에서 실력광주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감을 강사로 초청한 것 자체가 시기적절한 문제가 있는데, 공직사회를 비리집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해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강사초청에 별다른 기준은 없으며, 선출직 공직자 강좌는 광주시장과 교차특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진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中 쓰촨성 7.0 강진... 200여명 사망·실종

부상자 1만명 넘어서

중국 쓰촨성 루산(蘆山)현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21일 오전 10시 현재 각각 180명, 24명으로 파악됐다고 쓰촨성 정부가 21일 밝혔다. 부상자 숫자도 1만2277명으로 늘었다.

사망자가 집중된 루산현에서는 희생자 가운데 최소 10명이 초·중·고교 학생이라고 현지 교육 당국은 전했다.

이처럼 수색·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지만 당국은 2008년 쓰촨 대지진 같은 대규모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지진 때문에 적어도 1만 채 가량이 무너졌으며 구조대가 건물 잔해를 뒤져 생존자를 찾고 있다.

20일 오전 8시 2분 7.0 규모의 지진이 난 이후 쓰촨성 현지에서는 1165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 여진 가운데 규모 5~5.9의 지진은 3차례, 4~4.9의 지진은 16차례 발생했다.

국영 CCTV는 지진 피해가 가장 큰 야안시 루산(蘆山)현 등지에서 구조된 부상자가 야안 시내 인민의원 등 10여 개 의료시설로 계속 옮겨지고 있으며 현지의 병상과 약품이 부족해 중대인 환자들이 충칭(重慶) 등 주변 대도시로 다시 긴급 이송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규모 7.0의 강진이 강타한 쓰촨성 야안시 루산현에서 20일(현지시간) 구조대원들이 크게 다친 여성을 구조해 내고 있다. /연합뉴스

‘정원박람회’ 1면에서 계속

박람회장 정문 인근의 꽃과 나무는 비교적 잘 자랐지만 중국 정원과 호수정원 일대 나무와 꽃은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잔디는 새싹을 틔우지 못한 채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조지위는 “나무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최소 5년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184일

의 박람회 기간 동안 시든 꽃은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또 박람회 부지는 111만㎡를 넘지만 안내요원 등 운영요원이 턱없이 부족해 관람객들이 길을 잃거나 박람회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넓은 부지에 비해 화장실과 식당 등 편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해 점심시간에는 박람회장 내 식당(4곳)과 패스트푸드점(5곳) 앞에서 1시간여 넘

게 줄을 서야 하는 등의 불편도 컸다.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도 부족했다. 잔디 곳곳에 자리 잡은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 그늘을 만들어야 하지만 개막에 맞춰 나무들을 심어,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조직원 관계자는 “개막 초기라 운영상 여러 문제가 불거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무가 자라 더욱 아름다운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천=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휴일·일요일 겹치면 평일에 하루 더 쉰다

대체휴일제 안행위 의결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다만, 명절인 설과 추석 당일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대체휴일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내후년엔야 가능하다. 오는 2015년 설 연휴까지는 모든 공휴일과 설·추석 당일이 평일이어서, 일요일과 겹치는 2015년 삼일절(3월1일)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한약·국산·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약재 목목 독활 분양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광주결혼문화원

금호아파트, 서방사거리, 게임사거리, 신장입구, 호남직업전문학교, 흥플러스, 광주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553-14
062)223-3399 / 223-6664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슈니팡) & 버블팡(버블음료)

3호점 슈니팡&버블팡 메가박스 광주점 4월 5일(금) 14시

파레스 호텔, (구)런던안국사거리, 민속촌, 메가박스 게임이음품 슈니팡 3개 구매시 영화관(2중) 버블팡음료 1잔 무료증정, 무진주

4호점 순천 연향점 4월 20일(토) 14시

5호점 광주 전남대점 4월 26일, 6호점 광주 봉선점 4월 26일, 6호점 전남 함평점 4월 26일, 9호점 광주 상무점 5월 3일, 7호점 광주 문흥점 4월 26일, 10호점 광주 수완점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슈니팡&버블팡
광주·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란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정성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물을 뺀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 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쪽 자고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재격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맥질,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인다라한의원 광주점 원장 김동진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결과 제20106-중-9819호 (광고)